

치 사

직할교구신도회 제1,2대 회장 이취임식을 맞이하는 오늘, 사부대중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법연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다.

직할교구신도회는 신도종책의 근간을 담아내고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신도조직단체로서 신도회 변화의 구심점이자 선구적 위치에서 웅비의 날개를 활짝 펴나가고 있습니다. 힘찬 도약과 높고 긴 여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하길 축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신도는 삼보를 호지하고 보살도의 삶을 걸어가면서 개인의 인격 성장은 물론이고 사찰과 불교 발전에 큰 힘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도님들의 조직적 역량은 종단발전의 중심축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힘찬 발걸음으로 진일보해 나가는데 직할교구 신도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 '직할교구신도회'를 통해 새로운 출발과 도약의 중심에 선 여러분들에게 복덕이 무량하고 지혜 또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대 이연수 회장님은 초대 직할교구 신도회장을 맡아 신도회의 초석을 다지고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성 회장으로서는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 동안의 수고와 헌신은 참으로 뜻깊은 공덕을 지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제2대 지승동 회장님은 우리 종단 직영사찰인 조계사 신도회장으로 탁월한 리더십과 보시공덕으로 조계사를 도심포교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하는데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분입니다. 앞으로 직할교구 신도회의 발전에도 큰 힘을 기울여 교구신도회의 모범적인 새역사를 써나가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종단은 사부대중 공의에 의한 종단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성과 쇄신결사로 종단 발전은 물론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직할교구 신도회가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중심에 서 있어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종단과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한 목소리로 어우러져 어려움을 타개하고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길에 지극한 행복과 평화가 깃들 것이며 우리불교의 밝은 미래 또한 힘차게 동터 오를 것입니다.

신임 지승동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직할교구신도회가 일신우일신하며 일로 향상하길 앙망합니다. 아울러 직할교구 신도여러분과 임원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불기2556(2012)년 10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